

사회사적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도시빈민의 형성배경과 주거문화 -개항 이후 토막민촌부터 한국전쟁 직후 판자촌까지-

A Study on the Formation of Urban Squatter in Korea and their Housing Culture from Socio-historical Point of View

전남일*
Jun, Nam-Il

김묘정**
Kim, Myo-Jung

양세화***
Yang, Se-Hwa

홍형욱****
Hong, Hyung-Ock

손세관*****
Sohn, Sei-Kwa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the basic information about the formation background of urban squatter and their housing state in Korea. This study was progressed on the basis of socio-historical point of view from the opening of a port to the after the Korean War. In that sense, this study considered meaning of housing for urban squatter in the Korean housing history. For this study, the formation background of the urban squatter was divided into three periods. The first period was after the opening of a port (1876-1910) when the inflow of Japanese and their plundering from Korea started. The second was Japanese occupation period (1910-1945) which contributed to increase the number of Tomak (mud hut) and made the Tomak-min's village. The third period was Korean war & postwar years (1945-1953). This period was divided into three parts again; after the Korean independence (1945-1950), during the Korean War (1950-1953), and after the Korean War (1953-). The urban squatter was settled in the national land and the public land in each period and experienced the severe housing shortage. The government of the time could not protect the urban squatter from the special national states such as the Japanese rule and the Korean War.

주요어 : 사회사적 관점, 개항, 토막, 판자촌, 도시빈민, 주거문화

Keywords : socio-historical point of view, opening of a port, Tomak (mud hut), shanty-town, urban squatter, housing culture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문화적 산물인 주거는 서로다른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삶을 만들어낸다. 생산된 주거문화는 시간에 따라 누적되면서 역사적 환경으로 변모한다. 또한, 주거문화를 통해서 지역이나 국가의 독특한 삶의 변화과정을 파악해 낼 수도 있다. 이는 주거의 역사를 통하여 사회의 총체적인 환경, 사회구성원들의 태도와 가치, 그들의 생활과 이념 등 모든 영역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¹⁾ 특히, 주거사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도시빈민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구조체제에 존재하는 계층의 범주로서 '소외 및 배제'라는 사회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

다. 때문에 도시빈민의 존재에 대한 연구는 여러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²⁾ 따라서 근대주거사에는 도시빈민이 최초로 형성된 배경과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된 도시빈민의 주거상황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동안의 우리나라 주거사는 원시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주거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간혹, 광복이후까지 시간적 범위를 확장시킨 경우가 있더라도 개항이후의 주거사는 이전시기의 주거사에 비해 미약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대상에 있어서도 시대별, 지역별, 계층별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요소들 간의 관계 또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³⁾ 이처럼 총체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주거사에 대한 기술이 시기적 측면과 대상적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속에서 형성되는

*정회원(주거사), 가톨릭대 생활과학부 소비자주거학과 부교수. 공학박사.

**정회원(교신저자), 가톨릭대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공학박사.

***정회원, 울산대 생활과학부 주거환경학과 교수. Ph.D.

****정회원, 경희대 생활과학부 주거환경전공 교수. 이학박사.

*****정회원,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 건축학박사.

본 논문은 2005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육성사업 중 인문사회분야 심화연구(과제번호:KRF-2005-079-BS0105)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1) 손세관(2004), 한국 근현대 주거사를 바라보는 시각, 한국주거학회 춘계학술대회논문집 15권, p.1

2) 김영석(1985)은 도시빈민에 대하여 사회구성체적 측면, 계층구조적 측면, 형성론적 측면, 생활적 측면, 빈민운동적 측면에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3) 예를 들어, 전통주택에 대하여 다루거나, 1960년대 이후에 주를 이루고 있는 공동주택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는 등 편중된 주거사 연구가 대부분이다(손세관(2004), 앞의 논문, p.2).

인과관계나 연속성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 현대주거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개항(1876) 이후의 근대적 주거문화에 대한 기술이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나라 주거사에 공백이 존재한다. 즉, 근대시기는 우리나라 주거문화의 전체적인 상이 형성된 주요한 시기이지만, 그 시기에 어떠한 주거형식이 어떠한 사회적·문화적 배경 속에서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⁴⁾ 이와같이, 우리나라 주거문화의 전체적인 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형성·변화하면서 다양한 주거상황을 경험한 도시민민의 생활을 함께 살펴보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즉, 우리나라 전체적인 주거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민민이 형성되었던 개항 이후의 사회적 배경과 더불어 주거상황을 시대별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사적 관점⁵⁾에서의 우리나라 도시민민의 형성배경과 주거문화에 대한 기초적 연구로서, 개항이후부터 전쟁 직후까지 우리나라 도시민민의 형성배경과 주거를 문헌 중심으로 고찰하여 주거사 속에 내포되어 있는 도시민민의 주거문화를 이해해 보고자 하였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연구를 위한 시기적 범위는 우리나라 도시민민이 최초로 형성된 개항(1876) 이후부터 한국전쟁 직후(1960년대 이전)까지로 한정하였다. 세부적으로는 ① 개항이후(1876-1910), ② 일제강점기(1910-1945), ③ 한국전쟁 및 전후시기로 구분하였고, 한국전쟁 및 전후시기는 다시 ㉠ 광복이후(1945-1950), ㉡ 전쟁시기(1950-1953), ㉢ 전쟁직후(1953년 이후⁶⁾)의 시기로 구체화하였다.⁷⁾

본 연구는 문헌고찰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를 위해 도시민민주거에 관한 선행연구, 당시의 소설, 신문, 잡지 및 통계자료 등의 기록을 토대로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개항이후의 자료는 당시 조선을 방문한 외국인의 견문기와 사진기록을 토대로 하였고, 일제강점기의 자료는 신문, 소설, 한성부의 통계자료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국전쟁 및 전후시기의 자료는 당시의 현황을 기록한 신문

기사와 통계자료, 선행연구 등을 토대로 검토하였다.⁸⁾ 수집된 자료는 사회적 흐름에 따른 도시민민의 형성배경과 주거상황을 토대로 분석하였고, 각 시기별 시대적 상황 속에서 형성·변화된 도시민민의 주거문화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II. 도시민민주거 연구동향과 주거사 기술의 관점

1. 우리나라 도시민민주거 연구동향

빈민이란 정치, 사회, 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기회, 수단 또는 자원의 결핍상태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재해 등에 의한 기근으로 농촌 거주자가 빈곤층이 되는 과거의 현상과는 달리, 도시빈민은 도시거주자 또는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이 빈민화 된 경우를 말한다. 그 개념이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으나 보편적으로 경제적·비경제적 측면에서의 빈곤층이라 할 수 있다. 즉, 도시빈민은 자원적 측면에서의 생존적 빈곤과 사회구조적 측면에서의 소외 및 배제라는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⁹⁾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빈민은 개항 이후 형성된 토막민으로 정의되고 있다.¹⁰⁾ 그들의 주거는 토막이었으며 광복 직후까지 토막의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주거형태는 지속되었고 오히려 그 수가 증가하였다. 전쟁 직후에도 도시민민의 판자집은 불량주택 또는 무허가주택으로 분류되어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이처럼 토막을 비롯하여 판자집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도시빈민은 적절한 집을 갖지 못했던 것이다.

도시빈민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그들의 초기 형성배경은 다루지만 생활상과 주거상황은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거나,¹¹⁾ 근대이후 주택변천에 관한 연구가 있더라도 빈민주거에 관한 내용은 제외하고 있었다.¹²⁾ 또는 1960년대 이후의 무허가 불량주택지 공간구조분석이나 철거정책 등에 초점을 둔 연구가 많았다.¹³⁾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주거문화는 일반계층의 주거상황과 생활을 중심으로 대부분 기술되어 왔다. 근대화 과정에서 형성되어 여전히 존재하는 우리나라 도시빈민에 대한 시대별 형성배경과 주거문화에 대한 연구가 미약함을 알 수 있다.

4) 앞의 논문, p.2

5) 우리나라 근대주거사 연구의 필요성과 접근방법을 제시한 연구(손세관, 2004)에서는 근대주거사 기술에 있어서 사회사적 관점, 미시사적 관점, 공간사적 관점에서의 분석이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접근방법들은 우리나라 근대주거의 발전과정을 시대적 흐름에 따른 종적인 연구와 함께 주생활적 관점이나 건축적 관점에서 그 쟁점에 따른 실증적 자료를 통한 횡적인 연구가 병행될 수 있다.

6) 무허가 판자촌 및 불량주거지의 강제철거가 시작되었던 1960년대 이후의 시기는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또다른 사회적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전쟁 직후 형성된 도시민민의 판자촌까지 다루고자 한다. 집단이주정책에 의해 형성되어 지금까지 존재해오고 있는 도시민민의 문제는 추후 연구에서 다룰 계획이다.

7) 정동익(1985)은 우리나라 도시민민의 역사를 광복이전의 시기, 광복후부터 1960년까지의 시기, 1960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로 구분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상황과 함께 도시민민의 형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보다 세부적으로 그 시기를 구분하였다.

8) 참고문헌 참조

9) 노병일·윤경아, 주거빈곤층의 삶과 터전, 다운샘, 2004, p.17 김영석(1985), 도시빈민론, 아침, pp.56-59 정동익(1985), 도시빈민연구, 아침, pp.37-47

10) 조용훈·이광노(1988), 서울시 불량주거지 형성배경과 그 성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4(6), pp.61-72

서울특별시(1981), 서울육백년사 4권(1910-1945), p.1182

11) 선행연구 조용훈 외(1988)에 대한 문헌고찰을 실시하였다.

12) 선행연구 강영환(2002), 김선재(1987)에 대한 문헌고찰을 실시하였다.

13) 선행연구 박영기(1973), 조용훈(1984), 이관구 외(2000;2003), 김영재 외(2000), 이지연 외(1997), 김병호 외(1999)에 대한 문헌고찰을 실시하였다.

2. 주거사 기술의 사회사적 관점

우리나라 주거사를 기술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접근방법은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존재했던 주거유형의 다양성을 논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 근대주거의 전체적인 상을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각 시대별, 지역별, 계층별로 대표적인 주거형식을 추출하여 이를 심층적으로 고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주거형식 간의 관련성과 차별성을 규정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우리나라 근대주거의 전체적 흐름 속에서 추출된 주거유형을 대상으로 그것이 지니는 공간 구성상의 특징, 외형상의 특징, 공간의 사용방식, 공간의 구축방법 등을 분석하고 이러한 건축적인 내용 속에 담긴 사회적, 문화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근대주거사의 총체적 고찰을 위해서는 사회사적 관점, 미시사적 관점, 공간사적 관점으로 각각 접근하여 기술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 중에서, 사회사적 관점의 주거사는 주거를 전체 사회적 배경 속에서 파악함으로써 어떤 요인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그것이 형성되고 변화했는지, 그렇게 형성된 주거의 존재의미는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접근방법이다. 사회사적 관점의 경우 사회적 흐름에 따라 어떠한 계층이 생겼고 어떠한 주거유형이 나타났는지 사라졌는지를 통시적인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시대적인 순으로 기술되는 접근방법이다.¹⁴⁾

III. 시대적 배경에 따른 도시민민의 형성과 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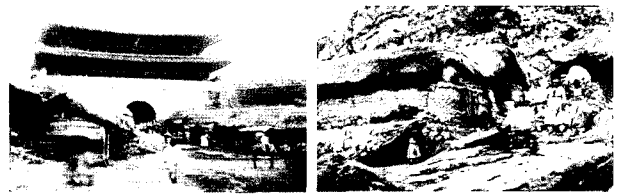
1. 개항이후(1876-1910)

1) 근대사회로의 진입과 도시민민의 형성

우리나라의 근대는 신문물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계기가 된 1876년의 개항을 그 기점으로 한다. 개항으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곳은 지금의 서울인 한성이었는데, 서양식의 종교건축물, 공사관 등이 세워지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또한, 지방 곳곳에는 개항장이 서게 되었고 도시가 팽창하기 시작한 시기였다.¹⁵⁾

일본은 조선의 농촌에 진출하여 농토를 수탈하고 농장을 확대하는 등 농촌을 경제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도시는 생계가 어려운 농촌 빈민에게는 기회의 땅이었고, 특히, 상공업과 교역의 발달로 도시화가 진행되어 온 한성은 농민들에게 매력적인 곳이었기 때문에 농민들은 새로운 생계수단을 찾아 도시로 몰려들었다. 한성의 규모는 이러한 유입인구의 정착으로 인하여 도성 밖으로까지 점차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인구의 도시집중은 주택난과 빈민 소외계층의 주거문제를 야기하게 되었고, 이농민들의 희망과는 달리 결국 도시빈민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개항기 도시빈민층의 주거상은 다음의 글에서 잘 나타난다.

“사대문안, 특히 북촌은 지체 높은 양반들의 집이어서 기와집이 연이어 있었다. 그러나 사대문 밖으로 나서면 초라한 초가집과 남루한 모습들의 빈민이 어울려 있었다. 농촌의 빈농들과 무토지민은 남부여대(男負女戴)하고 사대문 안으로 모여들었다.어쩌다 도성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개는 사대문 어귀나 밖, 또는 산중 자연의 바위 위에 초가집이나 토막집을 짓고 살았다. 이들은 생계를 위해 주로 낮에는 도성 내에서 지계를 지거나 온갖 잡일을 하고, 밤이면 돌아와 초가집에서 하루의 허기와 피로를 달래었다. 이들에게 한양의 풍요는 너무나 멀리 있었다.”¹⁶⁾



(a)송례문 주변의 초가집들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사진으로는 서울1.p47.2002.) (b)인왕산 아래의 초가집 (앞의 책, p307.)

그림 1. 개항기의 초가집

2) 도시민민의 생활과 주거환경

화려한 상류계층의 주거와는 달리, 개항이후 빈민계층의 주거환경은 비참하였다. 알렌의 조선견문기¹⁷⁾에는 이러한 도시민민의 주거상황이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대문이나 문의 주변에는 다음 해 발과 논갈이할 때를 대비하여 퇴비를 만들려고 오물과 쓰레기를 버리는 지저분한 시궁창 구멍이 있다.조선사람들은 오랜 경험으로 이런 냄새에 익숙하다. 그러나 그들은 사방 8피트의 작은 침실에서 이 해로운 공기를 어떻게 호흡하며 이 작은 방에 불을 때고 6-8명이 한 방에서 잠을 자고 생명을 유지해나갈 수 있는지 매우 놀라운 일이다.”

이상백(1962)의 한국사-근세기편¹⁸⁾에 의하면 당시, 평균 가족구성원 수(가옥 내 비혈연 동거인 제외)가 4명 정도인 것과 비교해 보면 6-8명은 대단한 대가족이거나 확대가족이었다고 볼 수 있다. 가옥 내 거주인구가 6명을 넘은 경우는 관직자나 유생계층이었지만, 관직자 계층이 이러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많은 동거인 식솔을 거느렸지만 경제적 상황이 뒷받침되지 않은 유생계층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또 다른 계층이 있었는데, 도시빈민을 형성하는 하류 계층이었다. 한말 한성부의 가족유형을 분석한 자료¹⁹⁾에 의하면 빈민계층의 상당수는 21.6%를 차지하는 확대가족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16)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2002), 사진으로는 보는 서울1:개항 이후 서울의 근대화와 그 시련 (1876-1910), 서울특별시, p.306

17) H.N 알렌(1908), 신복룡 역(1979), 조선견문기, 박영사, pp.109-110

18) 개항 이후 전국의 인구는 590만명, 호당 인구수는 4.18명이었다 (이상백(1962), 한국사-근세전기편-. 을지문화사, pp.426-428).

19) 한국사회사연구회(1993), 한국사회사연구회논문집; 한국 근현대 가족의 재조명, 문학과 지성사, p.11-41

14) 앞의 논문, p.6

15) 손정목(1982), 한국 개항기 도시사회경제사 연구, 일지사, p.95

이 확대가족은 여러 쌍의 부부와 어린아이, 친척들로 구성된 가구를 형성하였다. 이들에게는 말 그대로 비 가리고 누울 수 있는 자리만이 절실했던 것이다.

한성의 도심은 인구가 과밀해짐으로써 주거환경이 점점 열악해졌고, 비위생적인 환경이 되었다. 헤세 바르텍의 묘사²⁰⁾에서는 어린이들이 거리의 아무 곳이나 용변을 보는 것이 보통이었고 집 주변은 시궁창과 같다고 묘사하였다. 한성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당시의 골목길을 악취가 나며 진흙구덩이가 많은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주택 옆의 개울은 부엌과 변소의 오물을 내다버리는 하수구의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 이 하수구는 마치 해자처럼 집 주위를 둘러싸고 있어 사람들은 해자 위의 다리를 건너 주택 안으로 드나들게 되어있었다. 변소는 집안에 있지 않고 길가 한 칸에 집과 붙어있었다. 창문조차 없는 집들은 다닥다닥 붙어 있어 환기나 통풍이 되지 않았다.²¹⁾



(a)동대문밖 거리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사진으로 보는 서울1. p306. 2002.) (b)한양의 민가 골목길 (경기도박물관, 먼나라 꼬레.p203. 2003.)

그림 2. 밀집된 초기집과 하수구 역할을 하는 개울

2. 일제강점기(1910-1945)

1) 사회적 상황과 도시주거의 변화

1905년, 일본이 을사늑약을 통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후부터 조선에는 통감부가 설치되었고(1906년), 이어 조선총독부라는 강력한 통치기구가 설치되면서(1910년) 사회적으로 일본인들에 의한 지배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²²⁾ 일제는 계급구조의 재편뿐만 아니라 강점 초기부터 도시 개편을 통해 공간적으로도 식민지 지배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일제에 의한 도시개발은 초기에는 개항장

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후에 러일전쟁(1903)과 만주사변(1931)을 겪는 동안, 북부지방의 큰 도시들을 공업도시로 건설하여 대륙 침략을 위한 발판으로 삼고자 하였다. 그 중 한 예가 신의주였는데, 당시의 신의주는 도시계획에 의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상당히 현대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대부분 가로를 따라 연도형으로 배치되었던 당시의 주택들은 전통적인 조선의 도시 및 주거지 구조와는 상이한 것이었다. 이로써 조선에는 전통의 도시군들 외에 개항장으로 출발한 신도시군 등 성격이 다른 도시가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나 일제의 도시 개발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신흥도시를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조선의 전통적인 사회기반과는 동떨어진 도시개발을 진행시켰다. 또한 부(府)로 선정된 주요 도시²³⁾에는 일본인 거주자들이 대거 몰려 거주하는 등, 조선의 도시는 일본인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²⁴⁾

도시계층은 상류 지배계층인 일본인과 피지배계층인 조선인으로 분화되었고, 이러한 계층분리는 거주지의 분리와 병행되어 이루어졌다. 즉, 도시 내에서는 계획적으로 개발된 근대적 형태를 갖춘 일본인 거주지 및 시가지는 무질서한 조선인의 거주지와 명확한 경계를 이루며 공존하게 되었다. 경성²⁵⁾의 경우, 현 충무로 자리인 본정통(本町通)이나 을지로인 황금정(黃金町)은 도심변화가였으며 포장된 도로에 전차가 다니는 ‘근대적 도시’였다. 그러나 그곳을 벗어나면 전차노선이 끊어지는 초라한 조선인의 거주지와 마주치게 되어 있었다. 일본인이 모여 사는 정리된 시가지는 근대식 건물과 위생시설이 갖추어져 있지만 조선인이 모여 사는 곳은 그렇지 않았다. 채 만식의 소설 <탁류>와 박 태원의 소설 ‘골목안’도 일본인들과 조선인들이 도시 안에서 명확히 구분된 영역에서 살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런 현상은 대도시뿐만이 아니라 작은 도시에서도 일반적이었다.

“미두장은 군산의 심장이요, 전주통이니 본정통이니 해안통이니 하는 폭 넓은 길들은 대동맥이다. 이 대동맥 군데군데는 심장 가까이 여러 은행들이 서로 호응하듯 웅위하고 있고 심장 바로 전후 좌우에는 중매점들이 전화줄로 거미줄을 쳐 놓고 앉아있다.... 개북동, 구북동, 둔뱀이 그리고 이편으로 뚝 떨어져 정거장 뒤에 있는 스래(京捕里) 등 몇 곳이 군산의 인구 칠만 명 가운데 육 만도 넘는 조선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어깨를 비비면서 움닥움닥 모여 사는 곳이다.”²⁶⁾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란 오래들 그러하듯이 그 골목안도 한 걸음 발을 들여 놓기가 무섭게 핵 끼치는 냄새가 코에 아름답지 못했다. 썩은 널죽으로나마 덮지 않

20) 김영자 편역(1994), 서울/제2의 고향 -유럽인의 눈에 비친 100년 전 서울-,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 p.159

21) 경기도박물관(2003), 19세기말 프랑스 외교관 소장 사진전, 먼나라 꼬레-이플리트 프랑맹의 기억속으로.경기도박물관, p.203

22) 1945년에 이루어진 한국인과 일본인의 직업분포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절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였으며, 전체 인구의 7%만이 취업자였다. 그것도 일용직이나 보조원의 일이 대부분이었다. 반면에 기술직이나 공무원, 전문직은 모두 일본인이 차지하고 있어 전체 일본인의 39.5%가 전문직에 종사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민 역시 토지소유관계와 규모를 중심으로 극소수의 지주와 다수의 소작인으로 나뉘었다. 조선경제연보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동안 지주의 비율은 45% 미만이었으며, 약 18%를 차지하는 자작농을 제외한 나머지는 소작농으로 80%에 달하였다. 관료계급에 있어서는 한인 관료는 1910년 0.54%였던 것이 1942년에는 4.33%로 미미한 증가를 보인 반면, 일본인 관료의 비율은 같은 기간 17.09%에서 43.79%로 급격히 증가하여 한국 정부의 관료직 다수를 일본인들이 차지하였다(조선총독부. 조선사정(朝鮮事情). p8. 昭和19년(1945)).

23) 1876년 이후로 개항된 항구들인 인천, 부산, 마산, 진남포, 원산, 청진 등이 부(府)로 지정되었다.

24) 손정목(1982), 앞의 책, p.91-97

25) 경성(京城)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의 한성을 고쳐 부른 명칭이었다. 1910년 한일합방이후 ‘경성’으로 불려지다가 광복 이후에는 ‘서울’로 개칭되었다.

26) 채만식(1997), 탁류(濁流)-우한용 해설·주석, 서울대출판부, p8

은 시용창에는 사철 뚱 오줌이 흐르고 아홉 가구에 도무지 네 개 밖에 없는 쓰레기통 속에는 언제든지 구더기가 들끓었다.”²⁷⁾



(조지 로스 호주사진가의 눈을 통해 본 한국, 1904. p.107. 교보문고, 2004.)



(앞의 책, p114.)

그림 3. 일본인 마을과 조선인 마을의 대조

2) 토막민의 형성²⁸⁾과 주거환경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등장한 일본은 봉건지배층과 결탁하여 조선인 농민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하락시키면서 그들을 영세소작농으로 전락시켰다. 특히, 식민지화 직후부터 일제는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제도를 마련한다는 미명 하에 토지조사사업을 벌여 농촌의 토지를 장악하였고, 결국 농민들은 공장이 있는 대도시로 몰리게 되었다. 일제의 농촌수탈에 따른 이농은 일제강점기 동안 지속되었다. 이농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 시기는 1920년대 말부터 30년대 중반까지였다. 1915년부터 1944년 동안 도시의 인구변동률은 평균 7%의 성장을 보였지만 농촌은 1% 미만의 정체상태에 머물렀다.²⁹⁾ 그러나 일제의 식민지하에서는 도시에서 노동자로 산다는 것 또한 농민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가더라도 일자리가 보장된 것도 아니었다. 살기위해서는 남의 집 머슴살이나 지게꾼이 되어야 하는 등 극한상태의 도시빈민이 되어야만 했다.³⁰⁾ 도시 노동자의 삶의 애환을 담고 있는 채만식의 소설은 이를 잘 보여준다.

“굶어죽지 아니하고 굶어산다. 이 굶어산다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는 굶어죽는다는 것보다 다급한 일이다. 말은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 ‘굶어죽는 게 별것인가! 여러 끼 못 먹으면 굶어도 제절로 죽지!’ ...그러나 밥이라는 것은 모두 한결같은 현미 싸래기밥이다. 오분지 일이 완쌀의 쌀이요 오분지 일이 푸르스름한 쭈그렁이 쌀의 쌀토막이요, 오분지 일이 피요, 오분지 일이 겨조각이다. 이놈을 대되로 한되에 심칠전씩 주고 팔아다가는 조리로 일고 어찌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물에다가 한번 헹귀서 밥을 짓는다.”³¹⁾

도시에서는 토지와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반해 일부 소수의 지주나 자본가는 이를 독점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토지와 건물가격은 오르게 되었다. 도시로의 인구집중은 매년 증가하여 주택난은 심각해지고 토지 사용료는 올라가니 지주나 자본가를 제외한 사람들은 점점 궁핍해지고 집을 얻기가 더욱더 힘들어졌다. 더욱이, 부호층들의 가옥 매매와 임대폭리로 인해 주택난은 더욱 가중되었다.³²⁾

빈민층의 주거지는 생계유지를 위해 도심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외곽에 집중 분포하게 되었다. 행정상으로는 상류층 주거지와 같은 지역이지만 묘지나 유곽, 화장장 부근, 또는 강바닥이나 다리 밑 등이 주된 거주장소였다. 토막민촌은 1920년대 초엽 황금정(黃金町) 7정목(현 을지로 7가) 시유지 성벽아래에 1921년부터 빈민들이 모여 토막을 형성한 것이 그 시초였다.³³⁾ 특히 1925년에 일어난 한강의 홍수는 한강 일대 주거지를 휩쓸어 이재민이 급증하였고, 결과적으로 토막민의 숫자도 늘어났다. 1927년 경성시내 토막민촌의 분포는 신당리에 169호로 가장 많았고, 청계천 제방에 89호, 동부 이촌동에 40호가 토막민촌을 형성하였다. 그 외에도 원정, 아현리, 냉동, 고시정, 봉래정 등 20여개 지역에 10호 내외의 토막촌이 형성되었다. 이후 경성의 토막은 급격히 증가해서, 1928년에는 동대문서 관내에 687호, 본정서 관내에 128호, 용산서 관내에 200호, 서대문서 관내 62호, 종로서 관내 14호 등 함께 1,091호로 증가하였고 인구수도 약 8000명에 이르렀다. 특히, 1931년에는 경성을 비롯한 인천, 개성, 수원 등 다른 지방의 도시에도 토막촌이 확대되어 형성되었다. 이러한 토막촌의 확대를 언론에서는 경성의 문제만이 아닌 국가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³⁴⁾ 1935년, 절정에 이른 토막은 그 수가 3배 이상 늘어 3,576호, 토막민수 17,320명에 달했다.³⁵⁾

27) 박태원(1939), 골목안, 문장 1권 10호, p3
 28) 조선시대에도 기근으로 인해 도성밖에 유민이 집중하여 움집이 있었다는 기록도 있으나 일시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는 대량의 토막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점과 토막민촌 역시 대규모로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도시빈민층 주거지 형성의 시초라고 본다(조용훈 외(1988), 앞의 논문, pp.63-64).
 29) 일제강점기 연평균 인구 변동률 추이 (단위: %)

연도	도시	서울	농촌	전국
1915-1920	3.32	0.69	0.43	0.52
1920-1925	7.29	6.49	0.91	1.14
1925-1930	6.96	2.85	1.25	1.53
1930-1935	6.18	2.41	1.40	1.69
1935-1940	11.90	16.07	0.20	1.22
1940-1944	4.90	1.39	1.14	1.60
평균	6.79	4.98	0.88	1.27

*주: 행정구역 확장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1935-40년간 서울의 인구변동률은 6.58%로 추정됨(조선총독부. 통계연보; 국제조사보고서. 각년도).

30) 손정목(1996), 일제강점기 도시사회상 연구, 일지사, p.257-258

31) 채 만식(1994), 정거장 근처, 신원문화사, p49, p98
 32) 北岳生(1932), 도시의 주택란과 기대책, 신동아 2(10), pp.30-33
 33) 경성부에서는 토막민을 ‘하천부지나 임야 등 관유지, 사유지를 무단 점거하여 거주하는 자’라고 정의하였다. 토막에서 ‘막(幕)’은 겨우 비바람을 가릴 정도로 임시로 지은 집이라는 뜻으로 주막, 원두막, 오막살이 등의 ‘막’과 어원이 같다. ‘토(土)’는 토벽 또는 황벽이라는 정도의 뜻이다. 즉, ‘토막’은 허술한 움막을 가리키는 말이고, ‘토막민’은 그 속에 거주하는 사람을 뜻한다(서울특별시(1981), 서울옥백년사 4권(1910-1945), p.1183).
 34) 동아일보, 1931/12/5
 35) 강만길(1995), 일제시대 빈민생활사연구, 창비, pp.246-247

표 2. 1931-38년 사이의 경성 시내 토막민 증가추이

년도	토막호수(호)	토막민수(명)	경성전체인구(명)
1931	1,538	5,093	514,755
1932	-	-	538,123
1933	2,870	12,378	563,636
1934	2,902	14,179	592,278
1935	3,576	17,320	637,697
1936	-	-	677,241
1937	3,248	14,993	706,396
1938	3,316	16,644	-

※1935년을 고비로 다소 감소하는 것은 당시 사회사업으로서 흥제정(弘濟町)과 돈암정(敦岩町)의 수용부락에 수용된 토막민 700호가 통계에서 빠졌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서울특별시, p.1184. 1981)

유치진의 희곡 ‘토막’의 제1막에서는 무대의 배경이 되는 도시근교의 토막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오양간가치 누추하고 음습한 토막집의 내부-온돌방과 그에 접한 부엌. 방과 부엌사이에는 벽도 없시 그냥 통하였다. 천장과 벽이 시커머케 탄 것은 부엌 연기 때문이다. 온돌방의 후면에는 뒷골방에 통하는 방문이 있다. 좌편에 입구, 좌편에 문도 엮는 창하나. 창으로 가을 석양의 여원 광선이 흘러드러올 뿐, 대체로 토막내는 어둠컴컴하다.”³⁶⁾

토막민들은 제방, 다리 밑, 강바닥 또는 삼림을 무단으로 점거해 원시적인 움막을 지었고³⁷⁾ 초라한 움막이 지어지면 2가구, 3가구가 늘어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가구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여 수십호, 수백호, 또는 천여 호가 도로 계획 등을 무시한 채 밀집되어 미로와 같은 취락을 형성하였다. 취락의 규모가 커지면 생활필수품을 파는 상점과 우물까지 만들어졌다. 토막의 형태는 초라한 흙벽이나 나무판자벽에 짚가마니나 풀을 엮은 형태가 대부분이었고, 벽이 없고 지면에서 직접 지붕을 세운 움집 형태의 원시적인 토막도 상당수였다. 경성제국대학 위생조사부에 따르면 전체 556가구 가운데, 원시적인 움집 형태(A형)가 68가구, 초라한 벽과 지붕을 갖춘 토막(B형)이 221가구, B형의 토막 2개가 연결된 것이 267가구였다. 두 개의 토막이 합쳐진 형태에서는 방 하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경우가 많았다. 방 한 칸의 크기는 약 한 평반 정도였으나 여러 명의 가족이 함께 사용하게 되므로 일인당 차지하는 공간은 평균 0.5평이 채 되지 않았다. 여기에 면하는 곳은 출입구 하나 뿐이어서 환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핵감염 및 호흡기 질환 발생률이 높았다. 토막 가운데 90% 이상이 온돌에 의한 난방을 하였고 아궁이를 통해 취사도 겸하였다. 불완전한 주택이지만 온돌을 반드시 갖추는 것은 시공의 용이성이나 연료의 경제성을 고려한 것으로 당시 조선인의 주거생활과는 불과분의 관계에 있는 난방문화라고 평가하였다.³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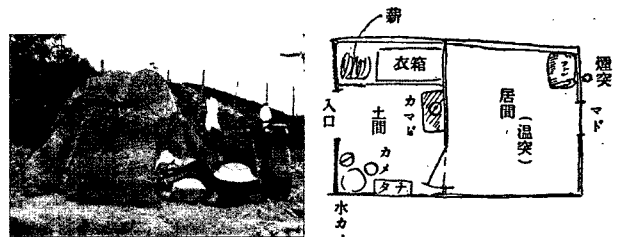
36) 유치진(1931), 토막, 문예월간 12월호, 경인문화사, p.34

37) 이규복(2002), 한국의 도시경관, 열화당, p.92

38) 京城帝國大學衛生調査部(1942), 土幕民의生活 · 衛生. 岩波書店, p.137-155

온돌이 여의치 않을 경우, 물항아리나 기름통으로 만든 풍로 등으로 취사를 하고 살았다. 토막민들의 직업은 주로 육체노동이 필요한 지게꾼이거나 낱품팔이, 행상, 걸실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³⁹⁾

경성부는 토막민 대책으로 1933년 고양군의 면유림 2만여 평을 매입하여 산재한 토막민을 이곳으로 이주시켰고, 1935년에는 고양군의 국유임야에 토막민 5,500여명(약 1,000호)을 이주시킨 사업을 시행하였지만 실패하였다. 강제이주 후에도 수용지를 이탈하여 다시 원거주지 근방에 토막을 짓고 사는 일이 되풀이 되었는데, 이는 도심부에 직장을 가진 일용 노동자들이던 토막민들로서는 도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산다는 것은 벌이를 잃는 것을 의미였기 때문이다.⁴⁰⁾ 토막민들은 1936년에 다시 신당정과 신설정에 이주되었지만 다시 강제 철거되었다.⁴¹⁾



(京城帝國大學衛生調査部, 土幕民의生活 · 衛生. 도입부, 1942.)

(앞의 책, p138)

그림 4. 가마니로 둘러친 토막과 평면

토막민에 대해 또다른 대책이 필요하던 시기에, 1938년에 열린 전국 도시문제 회의에서는 국유지를 개방하여 ‘세민지구’를 설정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였다.⁴²⁾ 그러나 토지구획정리 사업 진행이 여러 가지 이유로 늦어진데다가 재정 문제까지 겹치면서 사실상 무산되었다. 결국, 토막민에 대한 정책이 계속 실패하면서 토막민들은 새로 형성된 주거지 주변을 한시적으로 이동하면서 토막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즉, 토막민들은 대부분이 원래 거주지 근방에서 강제철거를 피해 떠돌이처럼 근거리 이동을 반복하는 생활을 하였다.⁴³⁾

3. 한국전쟁 및 전후시기

1) 광복후(1945-1950): 토막민촌의 급증

1945년 광복과 함께 한국은 격동하는 정치적 상황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한국 전쟁 전까지 미군정을 포함한 5년은 사회 내부구조가 재편되고 분단국가가

39) 川村(2004), 吉川 역, 한양/경성/서울을 걷다, 다인아트, p.41

40) 염복규(2002), 일제말. 경성지역의 빈민주거문제와 ‘시가지 계획’, 역사문제연구 제8호, pp.129-130

41) 이주 지역으로 예정되었던 신당정과 신설정 등지가 경성시가지 계획에 의한 행정구역 확장으로 신시가지개발지구로 편입되면서, 시가지의 신속한 정리가 우선이었던 토지구획정리사업 때문에 다시 강제 철거되었다(동아일보, 1938/4/19, 제2면).

42) 동아일보 1938/10/12, 제2면

43) 염복규(2002), 앞의 논문, p.149

형성되었던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또한, 이 기간은 한국전쟁 기간과 함께 인구이동이 가장 급격하게 이루어진 시기로서 일본을 포함한 해외와 북한으로부터의 인구이동이 많았다. 해외로부터의 이동의 3분의 2 이상이 일본 귀환 인구였고 만주, 중국의 순이었다. 이들은 서울이나 인천 등 도시지역에 주로 정착하였으며, 전반적인 사회 질서가 혼란한 상태에서 지방 거주자들 역시 도시로 몰려들었다 <표 3 참조>.

광복 이후, 3년 동안은 최소한의 질서유지와 굶주린 시민들을 위한 식량정책뿐이었다. 주택문제는 그러한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뒤 생각해야할 차후의 과제로 여겼고, 주택문제는 점점 심각해졌다. 또한, 1948년 정부수립 이후에도 주택정책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공산주의 체제의 북한과 대립적인 상황 하에서 정부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은 주택문제가 아닌 치안과 국방 그리고 기본적인 법령체계를 갖추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광복 이후부터 한국전쟁 전까지 전반적인 서울의 주택사정은 제자리걸음이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밀려들어 오는 인구의 유입에 비해 그에 대응하는 주택의 정책이 전무했고, 공공에 의한 주택보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 시기에는 되풀이되는 보릿고개로 인하여 많은 농민들은 영세경작을 포기하고 도시로 이주하였지만, 살집을 얻지 못하거나 사정이 허락되지 않아 임시거처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서민들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하천변이나 산비탈에 토막과 판잣집을 지었고 기존의 토막과 같은 무허가 주택들이 누적되어 토막민촌은 그 규모가 커지면서 급증하게 되었다. 그 당시 선거와 관련한 선심 행정으로 무허가 건물에 대한 단속이 약화되고 불법 건축 또한 묵인되어, 무허가 주택의 난립을 더욱 부추겼다.

표 3. 해외동포 및 월남민의 유입 규모(1945-1949년)

직전이주지	현거주지	전국(남한)	서울
일본		936,000(55.5)	29,555(9.0)
만주		212,007(12.5)	59,235(18.0)
중국		42,113(2.5)	21,272(6.5)
기타 외국		16,261(1.0)	1,925(.6)
북한		481,204(28.5)	216,804(65.9)
합계		1,687,586(100.0)	328,791(100.0)

(공보처 통계국(1949). 총인구조사;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에서 재인용.)

2) 한국전쟁 시기(1950-1953): 파괴된 삶의 터전과 피난민의 도시빈민화

1950년 한국전쟁으로 서울의 대부분이 파괴되었고 군사 및 운송시설지역을 비롯하여 주거지역 또한 큰 피해를 입었다. 특히, 철도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던 곳은 집중적인 폭격의 대상이 되었다. 당시, 서울의 19만 호 주택 중 절반가량이 폭격이나 그에 따른 화재로 소실되었고, 그 중 3만호가 무허가 주택이었으며 주택부족율은 36%에 달했다.

임시수도였던 부산은 전국 각지에서 운집한 피난민들을 합하여 전체인구가 100만 명을 넘었다. 전쟁의 포화(砲火)를 피해 살던 집과 가산을 두고 온 피난민들은 한 곳에 정착해서 살기보다는 피난지와 피난지를 전전하는 경우가 많았다. 총체적 궁핍 속에서 주거공간의 부재는 특히 심각하여 피난민들은 낙동강변에 천막을 펴고 거처하거나 짚으로 움집을 지어 생활하였다. 당시 부산에서는 봉래동, 청학동, 대연고개, 남부민동 등의 수용소와 기타 공공건물에 피난민들을 수용했으나, 수용시설은 턱없이 부족하였다.

수용소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방을 얻기도 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도로변은 물론 산비탈, 공지, 하천변, 남의 집 마당을 막론하고 움집과 판자집을 지어 거주하였다. 이조차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노천에서 잠자리를 해결하는 경우도 많았다. 한국전쟁 중 부산으로 월남한 청년의 화차(火車)칸에서의 피난살이를 그린 이호철의 소설 ‘탈향’에서는 언제 어디로 움직일지도 모르는 불안정한 거처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하룻밤 신세를 진 화차칸은 이틀날 곧잘 어디론가 없 어지곤 했다. 더러는 하루 저녁에도 몇 번씩 이 화차 저 화차 자리를 옮겨 잡아야 했다. 자리를 잡고 누우면 그런 대로 호뭇했다. ...이상한 기척이 나서 밤중에 눈을 떠보면, 우리가 누운 화차 칸은 또 화통에 매달려 달리곤 했다. ‘야 야, 깨 깨, 빨릿.....’ 자다가 말고 뛰어내려야 했다. 광석이는 번번이 실수를 했다. 화차 가는 쪽으로가 아니라 반대 쪽으로 뛰곤 했다. 내리고 보면 초량 제4두부 앞이기도 했고 부산진 역 앞이기도 했다. 이 화차 저 화차 기웃거리며 또 다른 빈 화차를 찾아들어야 했다. ‘야하, 이 노릇이라 구야 이건 견디겐.’...”⁴⁴⁾

이러한 피난살이는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해를 넘 기기도 하였다. 공동우물과 공동변소를 수 십 가구가 사용해야만 하는 식수난과 오물수거 난에도 불구하고 판자 집들로 이루어진 피난민 거주지는 산꼭대기까지 그 범위가 넓어졌다. 이는 부산의 도시구획이 무질서하게 확장되는 원인이 되었다.⁴⁵⁾



(a)낙동강변 피난민 천막촌 (이경모. 겨울기의 현장. p132. 눈빛. 1994.)



(b)노천의 피난민 (한국언론자료간행회, 한국전쟁중군기지2,p203.,1987.)

그림 5. 부산의 피난민 주거지

3) 한국전쟁 직후(1953년 이후): 판자촌의 형성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되면서 서울이 수복되었지만 또

44) 이호철(1955), 탈향(脫鄕), 문학예술 7월호, 문학예술사, p.64
45) 우동주(2000), 앞의 책, pp.126-131

다시 민족대이동이 시작되었다. 서울로 유입되는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전쟁으로 파괴된 주택과 부족한 주택수의 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났다.⁴⁶⁾ 1953년 9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은 주택 없는 난민은 무조건 상경하지 말 것이며, 특히 그 해 겨울엔 복귀하지 말라는 등의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⁴⁷⁾ ① 피난민의 서울 복귀는 가능하면 해동하고 하라. ② 경찰은 피난민의 도강을 엄격히 통제하여 서울에 집이 없는 사람은 허락하지 말라. ③ 서울 시내에서 길가나 냇가에 판자집이나 흙집을 짓는 것을 절대 금한다. ④ 정부는 외국에서 차관을 들여와서라도 우선 100만호의 집을 짓는다. ⑤ 서울에서는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만큼 계획구역을 엄수해서 제도에 맞는 집만 짓도록 소관 경찰은 책임을 져야한다.

그러나 100만호의 주택건설은 당시의 경제적 상황으로 불가능한 것이었고 당장 집 없는 피난민들이 겨울을 나는 것이 시급하였다. 심지어 전쟁 전 이미 세들어 있던 사람들과 새로운 주인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남의 집에 무단으로 입주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서울 수복 후 폐허가 된 서울에 모여드는 전쟁난민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게 된 정부는 몇 가지의 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다. 우선 전쟁난민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수복 이전 부산에서 적용했던 ‘피난민 수용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서울에 적용하였다. 1953년 10월 정부는 국가재건에 관해 국민의 협조를 구하는 공포문에서 주택난이 식량문제보다도 더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언급함으로써 재건을 위한 시도를 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부흥주택, 국민주택, 재건주택, 후생주택, 희망주택 등으로 불리는 구호주택을 건설하였지만 양적·질적으로 미흡하였다. 결국, 피난민은 도시 주변에 판자촌을 이루면서 정착하게 되었다.⁴⁸⁾

전쟁 당시 60만 명 정도로까지 감소하였던 서울의 인구는 전쟁 후 매년 10만 명 이상씩 늘어났다. 그러나 서울로 몰려드는 인구에 비해 도시정비와 주택보급 효과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고, 정부의 힘만으로 상황을 해결하기 어려웠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여기저기에 ‘살기 위한’ 불법 건물을 지었다. 사람들은 판자집은 물론 천막집과 동굴생활, 한 집에 여러 가구가 함께 사는 것도 흔한 상황이었다. 전쟁으로 인해 판자집을 둘로 나누어 윗방과 아랫방으로 나누어 살고 있는 성규가족과 동식의 거처를 묘사한 ‘사선기’에서는 집은 전쟁으로 인해 보잘 것 없는 형태의 침탈된 장소에 지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짜증에 가까운 성규의 어투로, 얼른 좀 내려오지 않고 뭘 꾸물거리고 있느냐는 재촉을 받고서야 동식은 마지못해 일어서 아랫방으로 내려갔다. 먼지와 그을음과 파리똥으로 까맣게 전 창하나 없는 벽과 천장 구석구석에는 거미줄이 얽혀 있고, 때우고 또 때우고 한 장판 바닥에서는 먼지가 풀썩풀썩이는 음침한 단칸방이다. 이 방에 들어설 때마다 동식은 어느 옛날 얘기이나 나옴직한 끔찍스운 괴물이라도 살 것 같은 우중충한 동굴을 연상하는 것이었다.”⁴⁹⁾

전쟁 전, 다리 밑이나 하천변, 성벽 옆 등에 형성되었던 토막민촌은 전쟁 이후 서울로 몰려드는 피난민들로 인해 더욱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 새로 형성된 무허가 주택은 일제시대의 토막에 그 재료만 바꾸어 양철, 베니어판, 함석, 아스팔트 루핑 등으로 지어진 것이었다. 산비탈, 하천 변, 철길변 등의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던 이러한 집들은 하꼬방이라 하여 상자집 또는 판자집 등의 이름으로 불렸으며 천막집과 움집의 형태도 있었다.⁵⁰⁾ 서울의 산은 북악산, 인왕산, 남산을 제외하고 피난민들의 산동네로 변하였다. 뒤늦게 귀환한 사람들은 청계천 변으로 모여 들었고, 판자집이 하천변 전체를 매웠다. 시내도 마찬가지로였는데 종로3가 부근부터는 대포집, 철물점 같은 판자집들이 기다란 띠를 이루었고, 종로 4가부터 무질서하게 2층 판자집들이 들어선 상황이었다.⁵¹⁾ 한국전쟁 직후, 실향민들이 모여사는 해방촌을 배경으로 한 소설 ‘오발탄’에는 판자촌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산비탈을 도려내고 무질서하게 주위 붙인 판자집들이었다. 철호는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레송 짝을 뜬어 덮은 처마가 어깨를 스칠만치 비좁은 골목이었다. 부엌에서들 아무데나 마구 버린 쓰레기 미끄러운 길에는 구공탄 재가 군데군데 흰 테 더벵이 모양 깔렸다. 저만치 골목 막다른 곳에, 누런 시멘트 부대 종이를 흰 실로 얼기설기 문살에 얹어맨 철호네 집 방문이 보였다. 철호는 때에 질어서 마치 가죽 끈처럼 된 형질이 달린 문걸쇠를 잡아 당겼다. 손가락이라도 드나들 만치 엉성한 문이면서 찌꺼끼끼 집혀서 잘 열리지를 않았다.”⁵²⁾



(a) 청계천변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사진으로 보는 서울4, p204, 2002)
(b) 정동의 러시아공사관 주변 (앞의 책, p195)

그림 6. 한국전쟁이후의 무허가 판자촌

46) 전쟁은 전국에 99만명에 달하는 인명 피해와 79,000여동의 주택 피해를 냈는데, 1953년 서울시의 주택통계를 보면 총 123,472호의 주택 중 수용시설 397호, 불량주택(움집, 판자집 등) 10,301호, 창고 구석 등에 거주하는 기다주택이 1,542호이며 정상주택 수는 133,232호로 나타났다(서울특별시(1981), 서울육백년사 4권, p.698).

47) 대한주택공사(1979), 대한주택공사 20년사, p.207-208

48) 장성수(2000), 한국전쟁과 건축-도시주거에 투영된 전쟁과 분단의 환경, 이상건축 제94호(6월호), pp.119-125

49) 손창섭(1953), 사선기(死線記), 문예 6월호, 경인문화사, p.181

50) 조용훈 외(1988), 앞의 논문, p.64

51) 김성환(2005), 고바우 김성환의 판자촌 이야기, 열림원, p.67

52) 이범선(1959), 오발탄, 현대문학 10월호, 현대문학사, p.140

표 4. 각 시기별 도시빈민 형성과 주거상황

시기(년도)	시대적 상황에 따른 도시빈민의 형성내용	주거상황	
개항이후 (1876-1910)	일제유입과 수탈의 시작, 이농민에 의한 최초의 도시빈민 형성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도시빈민주거 증가	
일제강점기 (1910-1945)	일제의 수탈악화로 인한 도시빈민 증가	토막의 증가와 토막민촌의 형성	
한국 전쟁 및 전후 시기	광복이후 (1945-1950)	귀환인구 및 이농인구 증가	토막민촌의 급증
	전쟁시기 (1950-1953)	전쟁피난민 형성	피난촌 형성: 피난민의 도시빈민화
	전쟁직후 (1953 이후)	귀환인구 및 이농인구 증가	국공유지 및 하천변의 판자촌 형성과 증가

IV.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 도시빈민의 시대별 형성배경과 주거상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표 4 참조>. 첫째, 개항이후(1876-1910)는 일제의 유입과 함께 수탈이 시작되어 농촌인구의 유입으로 한성을 비롯한 지방의 도시가 팽창한 시기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이농민에 의한 도시빈민이 형성되었으며 인구가 밀집된 도심에는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도시빈민주거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열악한 밀집주거지의 증가로 인한 도시빈민의 주거문제를 크게 인식하지는 못하였다.

둘째, 일제강점기(1910-1945)는 일제의 수탈이 본격화되고 소작농의 대거몰락과 함께 도시로의 이농인구가 급증하면서 토막의 증가와 함께 토막민촌이라는 도시빈민 집단촌이 형성된 시기였다. 일제강점기는 피지배국이라는 이유로 빈민을 위한 주택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본의 경성제국대학 위생조사부(1942)가 토막민의 생활실태조사를 통해 그들의 빈곤정도를 기록했을 뿐, 당시 조선의 토막민 구호를 위한 대책마련의 취지는 아니었다. 이 시기, 빈민구호대책이 있었지만 한시적이거나 실용성이 없는 대책이 생겼다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셋째, 한국전쟁 및 전후시기 가운데 ㉠ 광복이후(1945-1950)는 귀환인구와 이농인구가 증가한 시기로 주택난이 심각해지고 정부의 주택정책이 미흡하여 토막민촌의 문제가 지속되었던 시기였다. ㉡ 전쟁시기(1950-1953)는 전쟁 피난민이 형성되어 피난민의 도시빈민화 현상이 나타난 시기였다. 그리고 ㉢ 전쟁직후(1953 이후)는 역시 귀환인구와 이농인구가 증가하면서 서울의 국공유지와 하천을 중심으로 무허가 판자촌이 형성되어 도시빈민의 문제가 심각해진 시기였다. 도시빈민계층의 주택문제를 인식하였으나 사회적 질서유지와 식량문제 해결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도시빈민들의 주거문제에 정책적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없었다. 전쟁과 피난으로 많은 인구가 어쩔 수 없이 도시빈민화 되는 현상을 경험하였고, 전쟁 직후까지 파괴된 도시에서 빈곤한 주거생활을 지속하는 과정을 겪었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는 최초의 도시빈민이 형성되었던 개항 이후부터 각 시기별로 뚜렷한 사회적 변화는 물

론 그에 따른 도시빈민의 증가 및 새로운 유형의 도시빈민화를 경험하였다. 이들 도시빈민의 공통된 주거상황은 협소하고 열악했으며, 사회적·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정책적으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또한, 광복 이후까지도 주택부족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전쟁으로 인해 많은 보금자리가 파괴되는 등 지속적인 악순환을 경험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직후까지 도시빈민층의 주거빈곤 및 주택부족문제는 오히려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았다. 가장 큰 이유는 일본에 의한 강제점령과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이었다.

우리나라의 주거사를 세부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또는 계층적으로 배제되는 부분 없이 서술하려는 현 시점에서, 개항 이후 도시빈민의 형성과정과 그들의 주거상황을 단순히 지시간 과거의 모습만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도시빈민의 주거상황은 우리 주거문화의 저변을 이루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할 주거문화의 가치를 찾는 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시빈민의 형성배경과 주거문화에 대한 기초적 연구로서, 추후 심층적인 시대적·문화적 고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시빈민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川村(2004), 吉川 역, 한양 경성 서울을 걷다, 다인아트.
2. 강만길(1995), 일제시대빈민생활사연구, 창비.
3. 강영환(2002), 새로 쓴 한국 주거문화의 역사, 기문당.
4. 경기도박물관(2003), 먼나라 꼬레-이플리트 프랑맹의 기억 속으로, 경인문화사.
5. 京城帝國大學衛生調査部(1942), 土幕民の生活·衛生, 岩波書店.
6. 김병호·김성광·정갑식·유길준(1999), 불량주택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5(10), pp.35-46.
7. 김선재(1987), 한국근대 도시주택에 관한 연구: 일제시대 서울지역의 새로운 도시주택 유형을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김성환(2005), 고바우 김성환의 판자촌 이야기, 열림원.
9. 김영석(1985), 도시빈민론, 아침.
10. 김영자 편역(1994), 서울, 제2의 고향-유럽인의 눈에 비친 100년 전 서울-, 서울학연구소.
11. 김영재, 박용환(2000), 무허가정착지 재개발에 따른 근린관계형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 pp.395-398.
12. 노병일,윤경아(2004), 주거빈곤층의 삶과 터전, 다운샘.
13. 대한주택공사(1979), 대한주택공사 20년사, 대한주택공사.
14. 동아일보, 1931/12/05, 1938/04/19, 1938/10/12.
15. 박태원(1939), 골목안, 문장 1권 10호.
16. 박영기(1973), 서울시 저소득층 주거환경에 관한 조사분석-연희지역의 무허가불량주거지역과 시민아파트를 대상으로, 대한건축학회지 17(55), pp.25-29.
17. 北岳生(1932), 도시의 주택관과 기대책, 신동아 2(10).
18. 서울특별시(1981), 서울육백년사 제4권(1910-1945).

19.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2002), 사진으로 보는 서울1: 개항 이후 서울의 근대화와 그 시련(1876-1910), 서울특별시.
20.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2002), 사진으로 보는 서울4: 다시 일어서는 서울(1961-1970), 서울특별시.
21. 손세관(2004), 한국 근현대 주거사를 바라보는 시각, 한국주거학회 춘계학술대회논문집 15권, pp.1-10.
22. 손정목(1982), 한국개항기 도시사회경제사 연구, 일지사.
23. 손정목(1996), 일제강점기 도시사회상 연구, 일지사.
24. 손창섭(1953), 사선기(死線記), 문예 6월호, 경인문화사.
25. 염복규(2002), 일제말 경성지역의 빈민주거문제와 시가지계획, 역사문제연구 제8호, pp.129-130.
26. 우동주(2000), 한국전쟁이 도시 분산에 남긴 것-포화없는 전쟁터 부산항, 이상건축 6월호.
27. 유치진(1931), 토막, 문예월간 12월호, 경인문화사.
28. 이관구 · 임철희 · 김용하 · 이동배(2000), 불량주거지의 공간특성과 주거형태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20(1), pp.351-506.
29. 이관구 · 박철만 · 이동배(2003), 도시불량주거지의 건축물재료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23(1), pp.503-506.
30. 이규목(2002), 한국의 도시경관, 열화당.
31. 이범선(1959), 오발탄, 현대문학 10월호, 현대문학사.
32. 이상백(1962), 한국사-근세전기편-, 을지문화사.
33. 이지연 · 이선구(1997), 서울도심 경사지불량주택 재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17(2), pp.545-552.
34. 이호철(1955), 탈향(脫鄕), 문학예술 7월호, 문학예술사.
35. 장성수(2000), 한국전쟁과 건축-도시주거에 투영된 전쟁과 분단의 환경, 이상건축 6월호.
36. 정동익(1985), 도시빈민연구. 아침.
37. 조용훈 · 이광노(1988), 서울시 불량주거지 형성배경과 그 성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4(6), pp.61-72.
38. 조용훈(1984), 한국도시주택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9. 조선총독부(각년도), 통계연보; 국세조사보고서.
40. 朝鮮總督府(昭和19年; 1945년), 朝鮮事情, 京城.
41. G 로스(2004), 이경희 · 김은령 역, 호주 사진가의 눈을 통해 본 한국 1904, 교보문고.
42. 채만식(1997), 탁류-우한용 해설 · 주석, 서울대출판부.
43. 채만식(1994), 정거장 근처, 신원문화사.
44. 한국사회사연구회(1993), 한국 근현대가족의 재조명, 문학과 지성사.
45. 한국언론자료간행회(1987), 한국전쟁중군기자2, 한국언론자료간행회.
46. H.N 알렌(1908), 신복룡 역(1979), 조선건문기, 박영사.
47. W.E. 그리피스(1882), 신복룡 역(1999), 한말 외국인기록3-은자의 나라 한국-, 집문당.
48. 서울특별시 서울육백년사: <http://seoul600.visitseoul.net/>

(接受: 2006. 12. 29)